

파니움 - 세 번째

묵시와 정한 때: 예언적 대응

Jeff Pippenger

2025-02-28

열 처녀의 비유는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서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반복된다. 하박국 2장은 종말에 말하는 그 묵시를 지목함으로써 그 비유의 핵심을 제시한다.

나는 파수하는 곳에 서서 망대에 자리를 잡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이라 대답할지 보려고 지켜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환상을 기록하고 서판에 분명히 써서,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 이 환상은 아직 정한 때를 위한 것이니, 끝에 이르면 그것이 말하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르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마음이 높아진 자는 그 속이 바르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1-4.

다니엘서 11장 27절은 또한 '정한 때'를 가리킨다.

이 두 왕의 마음은 악을 행하려 하고, 그들은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겠으나, 그것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끝이 정한 때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1:27.

로마에 의해 확립된 '환상'은 '정한 때'를 위한 것이며,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며 악을 꾀하는 두 왕은 환상이 '말하기' 이전에 도착하는 예언적 이정표를 지목한다. 정한 때 이전에 두 왕은 '거짓'을 말하고, 정한 때에 환상이 말할 때 그것은 거짓되지 않는다. 그 정한 때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이며, 그 식탁에서의 만남은 예언적 기간의 시작을 표시한다. 그 '환상'은 역사 속에서 일요일 법령 때 성취되지만, 일요일 법령 이전에 미리 확립된다. 이는 신실한 자들이 환상을 기다리라고 들었고, 또한 그 환상을 공표하라고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다. 환상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환상의 성취 이전에 그것을 공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환상을 "기다리는" 이들을 대표한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였음을 아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얻었고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음이니이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였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홀로 앉았나니, 주께서 분노로 나를 가득 채우셨음이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항상하며, 나의 상처가 낫지 아니하고 고칠 수 없나이까? 주께서 내게 온전히 거짓말하는 자 같으시겠나이까, 마르는 물 같으시겠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데려오리니 네가 내 앞에 설 것이요,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골라 내면 네가 내 입이 되리라.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치고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며 너를 건져낼 것임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악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며, 포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리라. 예레미야 15:15-21.

미국의 일요일 법령은 '기억'이라는 상징이 표시되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서 항상 기억되어야 할 안식일이 최종 시험의 쟁점이 된다. 바로 그곳에서 잊혀졌던 두로의 음녀가 기억된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두 배의 심판을 내리신다.

말하기가 나타나는 이정표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인데, 그곳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 같은 이정표에서 발람의 예언선에서의 나귀도 "말한다". 세레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에 의해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한다".

여덟째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하려고 왔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했다. "아니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아이를 무엇이라 부르길 원하는지 물었다. 그는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적었다. 모두가 놀랐다.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누가복음 1:59-64.

미국에서(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이다)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때,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교황권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국이 된다. 같은 시점에 14만 4천이 기치로 높이 들려진다. 14만 4천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 교회이다. 일요일 법령 때 숫자 8이 표시되며, 여덟째 날에 요한이 할례를 받았고 사가랴가 말하였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이다. 일요일 법령은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 참된 안식일의 모조품이다. 일요일 법령 때 두로의 음녀가 '기억'된다. 일요일 법령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심판을 갑절로 갚으신다.

예레미야는 첫 번째 실망을 겪고 지체되는 목시를 기다리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는 목시가 정한 때에 말하며 거짓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입이 되는 신실한 자들을 대표한다. 정한 때에 말하는 그 목시에는, 그에 앞서 두 왕이 한 밥상에서 서로 거짓말하는 일이 있다. 그 사건은 일요일 법령에 앞서므로, 13절부터 15절에 제시된 대로 파니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이는 '백성의 약탈자들'이 '목시'를 세우는 바로 그 기간과 동일하다.

그 때에는 많은 이들이 남방의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또 네 백성 가운데 약탈자들도 환상을 이루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 다니엘 11:14.

"강도들"은 로마이며, 마지막 때의 로마는 가톨릭교다. 교황이 그 환상을 확립하는데, 그것은 일요일 법 직전의 시기에 일어난다. 그는 트럼프가 푸틴을 이기는 파니움 전투에 개입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 전투는 기원전 200년에 벌어졌는데, 그해는 이교 로마가 예언적 역사에 들어선 해이기도 했다. 대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 사건은 그가 동방 원정을 벌이던 동안, 하스모네 왕조의 형제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틀로스 2세 사이의 내전에 그가 개입했을 때 일어났다. 폼페이우스는 히르카누스 2세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석 달간의 포위 끝에 마침내 그 도시를 함락시켰다. 이는 유대의 독립이 끝났음을 의미했고, 이 지역에 대한 로마의 지배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이후 이 지역은 로마 통치 아래의 속주가 되었다.

일요일 법령 이전에 교황은 파니움 전투와 관련된 역사에 개입한다. 그가 예언적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 그의 등장은 그 '묵시'를 정립한다. 그 '묵시'는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령이라는 '정한 때'에 '말할' 것이다. 지체하던 그 '묵시'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체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린 실패한 예측이다. 그것은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중 둘째 천사의 도래를 알렸다. 비록 지체했는지라도 그 성취를 '기다리라'고 권면하며, 기다림의 기간을 도입한 실패한 예측이었다.

밀러파 역사에서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엑서터 야영회에서 기다림의 때가 끝났다. 실현되지 않은 예언으로 인한 실망은 두 부류의 처녀들의 품성을 최종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기를 가져왔고, 이어서 이전에 실패한 예언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다. 엑서터에서 제시된 그 설명은 그 환상이 성취될 때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밝혀 준다. 같은 특징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셨을 때에도 볼 수 있다. 그 시점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16:21.

주목할 것은, 방금 인용한 구절이, 예수께서 베드로의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신 장면과, 이어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베드로가 그 메시지에 반대하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장면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환상이 확립되어 봉인이 풀릴 때 드러나는 그 메시지는 두 부류의 예배자를 낳는데, 둘 다 베드로로 대표된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파니움이며, 둘 다 정한 때로 이끈다. 곧 그리스도의 역사선에서는 십자가, 밀러파 역사에서는 1844년 10월 22일, 그리고 오늘날에는 일요일 법령이다. 파니움, 가이사랴 빌립보, 엑서터 야영 집회는 동일한 예언적 이정표이다. 바로 이 이정표에서 교황이 서사에 도입됨으로써 묵시가 확립된다. 묵시의 확립은 정한 때에 앞선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십자가에 앞섰고, 엑서터 야영 집회는 1844년 10월 22일에 앞섰으며, 기원전 200년의 파니움은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에 앞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령 이전의 어느 시점에 두로의 창녀인 교황이 공공연히 예언의 역사 속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묵시가 확립된다.

그 이상은 제11장의 세 번째 대리전쟁에서 확립된다. 첫 번째 대리전쟁은 마지막 대리전쟁을 보여 주므로, 마지막 대리전쟁은 첫 번째와 동일한 예언적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공동체의 통치자'를 뜻하는 이름 블라디미르로 대표되는 남방의 왕은 교황과 미국 대통령의 동맹으로 인해 쫓겨 나간다. 최후의 교황은 계시록 17장의 성취로서 일곱

중에서 나온 여덟째가 될 것이며, 마지막 대통령도 일곱 중에서 나온 여덟째가 될 것이고, 십사만 사천의 기치 또한 그러할 것이다.

처음에 교황과 대통령의 관계는 '비밀 동맹'이었고,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대통령과 교황의 동맹도 '비밀'일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두로의 음녀가 예언적으로 '잊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사이의 동맹은 비밀이었지만, 동시에 교황은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얼굴이 되었다. 땅의 모든 왕들과 음행하는 두로의 음녀와 관련해 '잊혀지는' 것은, 그녀의 모든 죄를 하나의 반역이라는 범주로 통합하는 교황권의 특정한 특징이다. 그 특징은 가톨릭 교회의 '무류성' 주장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제 나는 화이트 자매의 책에서 한 장을 덧붙이며 이 글을 마치겠다. 이 논의는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지만, 이어지는 '위대한 논쟁'의 한 장을 읽을 때, 트럼프 내각 구성원의 거의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 신자이며, 오순절주의가 뒤섞여 있고, 최근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를 위한 공개 기도를 요청한 프랭클린 그레이엄의 영향력이 늘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위협받는 양심의 자유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과거에 비해 로마 가톨릭주의를 훨씬 더 호의적으로 바라본다. 가톨릭이 우세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교황주의자들이 영향력을 얻기 위해 화해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곳에서는, 개신교회들을 교황권의 위계 체제와 갈라놓는 교리들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본질적인 점들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와 더 나은 이해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한때 개신교도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교황주의를 혐오하도록 가르쳤고, 로마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 표명되는 정서는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가!

교황권의 옹호자들은 교회가 모함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며, 개신교계도 그 주장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이들은 무지와 암흑의 수세기 동안 교회의 지배를 특징지었던 가증한 악행과 부조리를 근거로 오늘날의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교회의 끔찍한 잔혹성을 그 시대의 야만성의 결과로 돌리고, 현대 문명의 영향으로 교회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호소한다.

이 오만한 권세가 800년 동안 내세워 온 무오성의 주장을 이 사람들은 잊어버렸단 말인가? 포기되기는커녕, 이 주장은 19세기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하게 주장되었다. 로마가 '교회는 결코 오류를 범한 적이 없으며, 성경에 따르면 장차도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상(John L. von Mosheim, Institutes of Ecclesiastical History, 제3권, 제2세기, 제2부, 제2장, 제9절, 주석 17), 어떻게 과거 시대에 그 행로를 지배해 온 원칙들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교황교회는 자신의 무류성 주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행한 모든 일을 그 교회는 옳다고 여기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와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는가? 지금 세속 정부들이 부과하고 있는 제약이 거두어지고 로마가 옛 권세를 회복하기만 하면, 그 교회의 폭정과 박해가 곧바로 되살아날 것이다.

잘 알려진 한 작가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교황청 교계제도의 태도와 그 정책이 성공할 경우 특히 미국을 위협하게 될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에서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든 편협함이나 유치함 탓으로 돌리려는 이들이 많다. 이런 이들은 로마 가톨릭의 성격과 태도에서 우리의 자유 제도에 적대적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성장에서도 불길한 조짐을 전혀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정부의 몇 가지 근본 원리를 가톨릭 교회의 것과 비교해 보자.'

미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보다 더 소중하거나 더 근본적인 것은 없다. 교황 비오 9세는 1854년 8월 15일자 회칙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터무니없고 그릇된 교리나 광설은 역병과도 같은 치명적 오류—국가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해악이다.' 같은 교황은 1864년 12월 8일자 회칙에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과 또한 '교회가 강제를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을 단죄했다.

"미국에서 로마가 보이는 특정한 어조는 심경의 변화를 함의하지 않는다. 로마는 무력한 곳에서는 관용적이다. 오코너 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가톨릭 세계가 위협에 빠지지 않고 그 반대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다.' ... 세인트루이스 대주교가 한때 이렇게 말했다. '이단과 불신앙은 범죄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모든 사람이 가톨릭 신자이며 가톨릭 종교가 그 나라 법의 본질적 일부인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그것들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가톨릭 교회의 모든 추기경, 대주교, 주교는 교황에게 충성 서약을 하는데,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다: '이단자들, 분열주의자들, 그리고 우리 전술한 주(교황) 또는 그의 전술한 후계자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나는 최선을 다해 박해하고 대적하겠다.' - Josiah Strong, Our Country, 제5장, 2-4단락."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교회 안의 수천 명이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빛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살아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섬김과 단지 형식과 의식의 반복 사이의 대조를 결코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기만적이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신앙 속에서 그렇게 교육받아 온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 바라보신다. 그분은 그들을 둘러싼 짙은 어둠을 빛줄기가 뚫고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에게 드러내실 것이며, 많은 이들이 마침내 그분의 백성 편에 설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체계로서의 로마 가톨릭주의는 지금도 그 역사상의 과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개신교 교회들은 큰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했을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계획과 활동 방식이 매우 광범위하다. 그 교회는 세계 지배를 되찾고, 박해를 부활시키며, 개신교가 이룬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격렬하고 단호한 투쟁을 준비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세를 키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가톨릭은 사방에서 세력을 넓혀 가고 있다. 개신교 국가들에서 그 교회의 교회와 예배당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라. 미국에서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후원받는 그 교회의 대학과 신학교들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라. 영국에서 의식주의가 성장하는 것과 가톨릭 진영으로의 잦은 전향을 보라. 이러한 일들은

순수한 복음의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개신교인들은 교황주의에 간여하고 그것을 비호해 왔으며, 교황주의자들 자신조차 보고 놀라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타협과 양보를 해 왔다.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주의의 진정한 성격과 그 지배에서 비롯될 위험에 눈을 감고 있다. 시민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에 가장 위험한 이 적의 공세에 맞서 저항하도록 대중이 각성될 필요가 있다.

많은 개신교도들은 가톨릭 종교가 매력 없고 그 예배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의식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여기서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 로마 가톨릭주의가 기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조잡하고 서투른 사기극은 아니다. 로마 교회의 종교적 예식은 대단히 인상적인 의식이다. 그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제의는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운다. 눈이 사로잡힌다. 장엄한 교회, 위용 있는 행렬, 황금 제단, 보석으로 장식된 성소, 정선된 회화, 정교하고 섬세한 조각은 미에 대한 사랑을 자극한다. 귀 또한 사로잡힌다. 그 음악은 비길 데 없다. 웅장한 대성당의 높다란 돔과 기둥이 늘어선 통로를 가득 채우며 부풀어 오르는 저음의 오르간이 내는 풍부한 음색이 수많은 목소리의 선율과 어우러질 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경외와 숭엄함을 새기지 않을 리 없다.

죄로 병든 영혼의 갈망을 조롱할 뿐인 이러한 외적 화려함과 허례허식은 내면의 부패를 드러내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것을 권하기 위해 그런 유혹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 가운데 참된 기독교는 너무도 순결하고 아름다워서, 어떤 외적 장식도 그 참된 가치를 더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아름다움, 곧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이다.

문체의 화려함이 반드시 순수하고 고상한 사상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에 대한 고상한 관념과 섬세한 취미의 세련됨은 종종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마음속에도 존재한다. 그것들은 종종 사탄에 의해 사용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의 필요를 잊게 하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그들에게 무한한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고,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 살게 만든다.

외적 형식의 종교는 거둬나지 않은 마음에 매력적이다. 가톨릭 예배의 장엄함과 의식은 유혹적이며 현혹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이 미혹되며, 그들은 로마 교회를 천국의 문 그 자체로 여기게 된다. 진리의 터 위에 발을 굳게 디디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만이 그 영향력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은 능력은 없이 경건의 형식만을 받아들일 이 끌릴 것이다. 이러한 종교야말로 대중이 바라는 것이다.

교회가 죄 사함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그리고 그것 없이는 교회의 용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고해성사의 제도 또한 악에 면허를 주는 경향이 있다. 타락한 인간 앞에 무릎 꿇고, 고백으로 마음의 은밀한 생각과 상상들을 드러내는 자는 자기 인간됨을 비하하고 영혼의 모든 고귀한 본능을 타락시킨다. 자기 생애의 죄를 사제—과오를 범하고 죄 많은 필멸자이며, 자주 술과 방탕으로 타락해 있는—에게 털어놓음으로써, 그의 인격의 기준은 낮아지고 그 결과로 그 자신이 더럽혀진다. 사제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은 타락한 인류의 형상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이 비천한 고백은, 세상을 더럽히고 마지막 멸망을 준비시키는 많은 악이 흘러나온 은밀한 근원이다. 그럼에도 자기 방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혼을 하나님께 여는 것보다 같은 필멸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더 기분 좋다. 죄를 버리는 것보다 고행을 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는 더 맞고, 굶은 배와 곯은 똥과 싸움과 살을 파고드는 쇠사슬로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보다 더 쉽다. 그리스도의 명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메고자 하는 육신의 마음이 택하는 명에는 무겁다.

그리스도 초림 당시의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교회 사이에는 현저한 유사성이 있다. 유대인들은 은밀히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원칙을 짓밟으면서도, 겉으로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데 엄격하여, 순종을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가혹한 요구와 전통들을 율법에 덧붙였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경한다고 공언했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 신자들도 십자가를 공경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을 높이 받들면서도, 그 상징이 가리키는 그분을 그들의 삶으로 부인한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들의 교회와 제단과 의복에 십자가를 단다. 도처에서 십자가의 상징이 보인다. 도처에서 그것이 겉으로는 존중되고 높임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분별한 전통, 잘못된 해석, 그리고 가혹한 요구의 더미 아래 묻혀 있다. 편협한 유대인들에 관하여 구주께서 하신 말씀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우고, 자기들은 그것을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3:4. 양심적인 영혼들은 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 교회의 많은 고위 성직자들은 사치와 감각적 쾌락 속에 살고 있다.

성상과 성유물 숭배,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교황을 높이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서 빼앗아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들이다. 그들의 파멸을 이루기 위해 그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분에게서 그들의 주의를 돌리려 애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상에게로든 그들을 이끌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사탄의 끊임없는 노력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본성, 그리고 대쟁투에서 걸려 있는 진정한 쟁점들을 왜곡하는 데 있다. 그의 꾀변은 하나님의 율법의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용을 부여한다. 동시에 그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품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미움으로 대하도록 만든다. 자기 성품에 내재한 잔혹함을 창조주께 전가하고, 그것은 종교의 체계 속에 구체화되어 예배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눈멀게 되고, 사탄은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위한 자기 대리인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은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인신제사가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고, 우상숭배의 온갖 형태 아래서 끔찍한 잔혹 행위들이 자행되어 왔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교와 기독교의 형식을 결합하고, 이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하여, 그에 못지않게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관행에 의지해 왔다. 로마의 지배가 최고조였던 시절에는 그들의 교리를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고문 도구들이 있었다.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화형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심판

때에 드러나기 전에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규모의 학살도 있었다.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그들의 주인인 사탄의 지시 아래, 희생자의 생명을 끝내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연구했다. 많은 경우 그 지옥 같은 절차는 인간의 인내 한계에 이를 때까지 반복되었고, 생명력이 싸움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되어, 고통받는 자는 죽음을 달콤한 해방으로 맞이했다.

그것이 로마의 반대자들의 운명이었다. 로마는 추종자들에게 채찍질과 아사 직전의 굶주림, 상상할 수 있는 모든—마음이 아플 정도로 끔찍한—형태의 육체적 고행을 규율로 부과했다. 하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참회자들은 자연의 법칙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상 생활을 축복하고 기쁘게 하시려고 맺어 주신 유대들을 끊으라고 배웠다. 교회 묘지에는 자연스러운 애정을 꺾으려 하고, 동료 피조물에 대한 모든 연민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으로 여기며 억누르려는 헛된 노력 속에 생애를 보낸 희생자들이 수백만 명이나 묻혀 있다.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 세계의 한복판과 그 전역에서 수백 년 동안 드러난 사탄의 집요한 잔혹함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주의의 역사만 보면 된다. 이 거대한 기만의 체계를 통해 악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을 위장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는지 볼 때, 그가 왜 성경에 그토록 큰 적개심을 품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날 것이며,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우지 않으신다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겸손하고 순종하는 영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남녀가 천국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수도원에 자신을 가두어야 한다는 본을 삶으로 보여주신 적이 없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을 억눌러야 한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 구주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흘렀다. 사람이 도덕적 완전해 가까워질수록 그의 감수성은 더 민감해지고, 죄에 대한 분별력은 더욱 예리해지며,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동정은 더 깊어진다. 교황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품성은 우리 구주의 품성과 비교해 어떠한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자신께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이나 고문대에 넘기신 적이 있었는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정죄하는 그분의 음성이 들린 적이 있었는가? 그분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으셨을 때, 사도 요한은 분노로 가득 차 여쭙었다. '주여,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키게 하라고 명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는 제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거친 마음을 꾸짖어 이르셨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9:54, 56.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정신과 그분의 자칭 대리자가 드러낸 정신은 얼마나 다른가!

로마 교회는 이제 끔찍한 잔혹 행위의 기록을 변명으로 가리고, 세상 앞에 그럴듯한 겉모습을 내세우고 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옷을 입었으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과거 시대에 존재하던 교황제도의 모든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가장 암흑했던 시대에 고안된 교리들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그토록 기꺼이 공경하려 하는 그 교황제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 그 불의를 폭로하던 종교개혁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던 그것과 동일하다. 그 교황제도는 왕들과 제후들 위에 군림하며 하나님의 특권을 주장하던 그와 같은 교만과 오만한 권리 주장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인간의 자유를 짓밟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였던 그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잔혹하고 전제적이다.

교황권은 예언이 말한 그대로, 말세의 배도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3, 4. 자신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성격을 가장하는 것은 그녀의 정책의 일부이다; 그러나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겉모습 아래에 그녀는 변치 않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다. '이단자들과 이단 혐의가 있는 자들에게는 신의를 지켜서는 안 된다'(Lenfant, 1권, 516쪽)라고 그녀는 선언한다. 성도들의 피로 천 년의 기록을 남긴 이 권세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부로 인정받아야 하는가?

개신교 국가들에서 가톨릭이 예전보다 개신교와의 차이가 덜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것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 변화는 교황제도에 있지 않다. 실제로 가톨릭은 오늘날 존재하는 개신교의 많은 부분과 닮아 있는데, 그것은 개신교가 종교개혁자들의 시대 이후 크게 타락했기 때문이다.

개신교 교회들이 세상의 환심을 사려 해 온 탓에, 거짓 자비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들은 모든 악한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옳다고만 여기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마침내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한 번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을 수호하여 굳게 서는 대신, 이제는 말하자면 로마에 대한 자애롭지 못한 견해를 가졌던 것을 사과하고, 자신의 편협함을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다.

로마 가톨릭주의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그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나오는 위험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많은 이들은 중세에 팽배해 있던 지적·도덕적 암흑이 그 교리와 미신, 그리고 압제가 확산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현대의 더 높은 지성, 지식의 보편적 확산, 종교 문제에서 갈수록 커지는 자유주의가 불관용과 폭정의 부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계몽된 시대에 그런 상황이 존재하리라는 생각 자체가 조롱을 받는다. 지적·도덕적·종교적인 위대한 빛이 이 세대 위에 비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펼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하늘로부터 온 빛이 세상에 비추어졌다. 그러나 더 큰 빛이 주어질수록, 그것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어둠은 더욱 짙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개신교인들은 교황권의 참된 성격을 보게 되어 그것을 혐오하고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스스로 깨우쳤다고 자부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들은 양심을 잠재울 어떤 수단이 필요하여, 가장 덜 영적이며 자기를 낫출 필요가 거의 없는 것을 찾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통용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게 하는 방법이다. 교황권은 이러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적합하다. 그것은 거의 온 세상을 포괄하는 인류의 두 부류, 곧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과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그 권세의 비밀이 있다.

심대한 지적 암흑의 때가 교황권의 성공에 유리했음이 이미 드러났다. 심대한 지적 빛의 때 또한 그 성공에 똑같이 유리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지나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의 지식도 없이 지낼 때, 그들의 눈은 가려졌고 수천 명이 발 앞에 펼쳐진 그물을 보지 못한 채 그물에 걸려들었다. 이 시대에는 인간의 사변과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눈부신 광채에 눈이 현혹되는 이들이 많아, 그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눈을 가린 사람처럼 험사리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적 능력이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져 진리와 의를 섬기는 데 사용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교만과 야망을 품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일 때, 지성은 무지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짓 과학은, 그 매혹적인 형식들과 더불어 교황권을 받아들이도록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암흑시대에 지식을 억압함으로써 그 세력 확장의 길을 열었던 것만큼이나 성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관행에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운동들에서, 개신교도들은 교황주의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은 구세계에서 상실한 지배권을 개신교가 주류인 미국에서 교황권이 다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이 일요일 준수의 강제—로마에서 비롯된 관습이며 로마는 그것을 자신의 권위의 표징이라 주장한다—라는 사실이다. 세속적 관습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숭상하는, 곧 교황권의 정신이 개신교 교회들에 스며들어, 교황권이 앞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요일을 높이는 일을 그들 또한 하도록 이끌고 있다.

독자가 머지않아 닥칠 투쟁에서 동원될 세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과거 여러 시대에 로마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했던 수단들의 기록을 추적해 보기만 하면 된다. 그가 교황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알고자 한다면, 안식일과 그 수호자들을 향해 로마가 드러냈던 정신을 보라.

세속 권력의 뒷받침을 받은 왕실 칙령과 공의회, 그리고 교회 규정들은 그 이교 축제가 기독교 세계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게 된 수단이었다. 주일 준수를 강제한 최초의 공적 조치는 콘스탄티누스가 제정한 법률(서기 321년)이었다. 이 칙령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존귀한 태양의 날'에 쉬도록 요구했지만, 시골 사람들에게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계속 허용했다. 사실상 이교적 법령이었지만, 황제는 형식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한 뒤에도 이를 집행했다.

왕의 칙령이 신적 권위를 충분히 대신하지 못하자,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려 했고 콘스탄티누스의 특별한 친구이자 아침꾼이었던 주교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기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교리를 입증할 성경의 증언은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유세비우스 자신도 무의식중에 그 허위를 인정하고 변화의 실제 주도자들을 가리킨다. 그는 말한다.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의무였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일로 옮겼다." - 로버트 콕스, *Sabbath Laws and Sabbath Duties*, 538쪽. 그러나 근거 없던 그 일요일 논거는 사람들이 주의 안식일을 짓밟는 데 대담해지도록 하는 구실이 되었다. 세상의 영예를 얻고자 하던 모든 이들이 그 대중적인 축일을 받아들였다.

교황권이 공고히 확립되자, 일요일을 높히려는 조치는 계속되었다. 한동안 사람들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시간에는 농사일에 종사했고, 일곱째 날은 여전히 안식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점차 변화가 이루어졌다. 성직자들에게는 일요일에 어떠한 민사상의 분쟁에도 판결을 내리는 일이 금지되었다. 곧이어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인 노동을 삼가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어길 경우 자유인은 벌금, 하인은 매질의 형벌을 받았다. 그 후에는 부유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몰수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이 제정되었고, 마침내 끝까지 완고하면 노예로 만들도록 했다. 하층 계급은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기적도 동원되었다. 다른 기적들 가운데에는, 일요일에 밭을 갈 참에 쇠불이로 쟁기를 닦던 한 농부의 경우 그 쇠불이가 그의 손에 단단히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그는 2년 동안 그것을 손에 달고 다녀야 했고 그로 인해 '지극히 큰 고통과 수치'를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 Francis West, 주일에 관한 역사적·실천적 논고, 174쪽.

"후에 교황은 본당 신부가 주일을 어기는 자들을 훈계하고, 그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도록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자신과 이웃에게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공의회는 심지어 개신교도들까지 널리 사용하던 논증을 내세웠는데, 사람들이 주일에 노동하다가 벼락을 맞았으므로 그날이 안식일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날을 소홀히 한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큰지 명백하다'고 고위 성직자들은 말했다. 이어서 사제들과 목회자들, 왕과 제후들, 그리고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그 날이 그 명예를 회복하고, 기독교의 명예를 위해 앞으로 더 경건하게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유의할 것'을 호소하였다. - 토머스 모러, '주님의 날의 명칭, 개념, 준수에 관한 여섯 대화로 된 논설', 271쪽."

공의회의 결정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 일요일에는 노동을 삼가도록 강제하는 칙령을 반포해 달라고 세속 당국에 간청하였다. 로마에서 열린 한 시노드에서는 이전의 모든 결정들이 더 큰 권위와 엄숙함으로 재확인되었다. 그것들은 또한 교회법에 편입되어 거의 전 그리스도교 세계에 걸쳐 세속 당국에 의해 집행되었다. (Heylyn, History of the Sabbath, 제2부, 제5장, 제7절 참조.)

그럼에도 일요일 준수를 뒷받침할 성경적 권위의 부재는 적지 않은 곤란을 초래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교사들이 여호와의 분명한 선언,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를 제쳐 두고 태양의 날을 기리려는 권리를 의문시했다. 성경적 증언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방책이 필요했다. 12세기 말 무렵, 일요일의 열성적 옹호자가 잉글랜드의 교회들을 방문했으나 진리를 위한 신실한 증인들의 저항을 받았고, 그의 노력은 너무도 결실이 없어서 한동안 그 나라를 떠나 자신의 가르침을 강제할 방도를 이리저리 모색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 결핍은 보충되어 있었고, 이후의 활동에서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두루마리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필요한 명령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무시무시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이 귀중한 문서—그 문서가 뒷받침하던 제도만큼이나 비열한 위조물—는 하늘에서 떨어져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있는 성 시메온의 제단 위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비롯된 근원은 로마의 교황 궁전이였다. 교회의 권세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사기와

위조는 모든 시대에 걸쳐 교황권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 두루마리는 토요일 오후 제9시, 곧 오후 세 시부터 월요일 일출까지 노동을 금했으며, 그 권위는 많은 기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선언되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사람들은 마비에 걸렸다는 보고가 있었다. 곡물을 갈아 보려던 한 제분업자는 밀가루 대신 피가 팔팔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고, 세찬 물줄기에도 불구하고 물레방아는 멈춰 섰다. 오븐에 반죽을 넣은 한 여인은 오븐이 매우 뜨거웠음에도 꺼내 보니 반죽이 익지 않은 채임을 알았다. 또 다른 이는 제9시에 굽기 위해 반죽을 준비했지만 월요일까지 미루기로 했고, 다음 날 그것이 신의 힘으로 빵이 되어 구워져 있음을 발견했다. 토요일 제9시 이후에 빵을 구운 한 남자는, 다음 날 아침 그것을 떼어 보니 피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처럼 터무니없고 미신적인 꾸며낸 이야기들로 일요일 옹호자들은 그 신성함을 확립하려 했다. (Roger de Hoveden, *Annals*, vol. 2, pp. 526-530 참조.)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옛 안식일의 일부를 일요일에 결합함으로써 일요일 준수를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시간대는 달랐다. 스코틀랜드 왕의 칙령은 '토요일 정오부터는 거룩한 때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때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누구도 세속적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 Morer, 290, 291쪽.

그러나 일요일의 신성성을 확립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황주의자들 자신이 안식일의 신적 권위와 그것을 대체한 제도의 인간적 기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였다. 16세기에 한 로마 가톨릭 공의회는 분명히 선언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곱째 날이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유대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처하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받아들여져 지켜져 왔음을 기억하라.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바꾸었지만!—같은 책, 281, 282쪽.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다루던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있었다.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에 대한 로마의 정책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는 왈도파에 대한 길고도 피비린내 나는 박해에서 나타났다. 그들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제4계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고난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에티오피아와 아비시니아 교회의 역사는 특히 의미심장하다. 암흑시대의 어둠 속에서 중앙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에서 사라져 잊혀졌고, 수세기 동안 신앙을 실천할 자유를 누렸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가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아비시니아의 황제는 곧 현혹되어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다른 양보들도 뒤따랐다.

가장 가혹한 형벌을 예고하며 안식일 준수를 금하는 칙령이 내려졌다. (Michael Geddes, *Church History of Ethiopia*, 311-312쪽 참조.) 그러나 교황의 폭정은 곧 너무도 참기 어려운 멍에가 되어 아비시니아인들은 그것을 목에서 벗어 던지기로 결심하였다. 혹독한 투쟁 끝에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아비시니아 영토에서 추방되었고, 옛 신앙이 회복되었다. 교회들은 그들의 자유를 기뻐했으며, 로마의 기만과 광신, 그리고 전제적 권력에 관해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은 고립된 그들 영토 안에 만족히 머물며, 나머지 그리스도교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교황 교회가 완전한 배도에 빠지기 이전에 지키던 그대로 안식일을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일곱째 날을 지키는 한편, 교회의 관습에 따라 일요일에는 노동을 삼갔다. 로마가 최고의 권세를 장악하자, 자신의 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짓밟았다. 그러나 거의 천 년 동안 숨어 지내던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이 배도에 동참하지 않았다.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그들은 참된 안식일을 제쳐 두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도록 강요를 받았으나, 독립을 회복하자마자 곧바로 제4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갔다.

과거의 이 기록들은 로마가 참된 안식일과 그 수호자들을 향해 품은 적대, 그리고 자신이 제정한 제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을 분명히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일요일을 높이기 위해 연합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으로 대표되는 권세가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교황권—거기서는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상징된—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두 뿔 가진 그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말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냐' 모두에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명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11-16.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으로 대표되는 권세가 미국임이 밝혀졌으며, 로마가 자기의 우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성수를 미국이 강요할 때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임이 보여졌다. 그러나 교황권에 대한 이러한 경배에 있어서 미국만 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때 로마의 지배를 인정했던 나라들에서의 로마의 영향력은 아직도 사라졌다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또한 예언은 그녀의 권세가 회복될 것을 미리 말한다.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놀랍게 따르더라.' 3절.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건은 1798년에 있었던 교황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그 후에 예언자는 말한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놀랍게 따르더라.'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진술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3-8. 그는 때의 끝까지 속임수의 일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계시자는 교황권을 가리키며 선언한다. '땅에 사는 자들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그를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8. 구세계와 신세계 모두에서, 로마 교회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일요일 제도를 존중하는 일로써 교황권은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19세기 중엽 이래로 미국의 예언 연구자들은 이 증언을 세상에 제시해 왔다. 지금 전개되는 사건들 속에서 그 예언의 성취를 향한 빠른 진전이 보인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기 위해 기적을 꾸며냈던 교황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일요일 준수에 신적 권위를 주장하면서도 성경적 근거는 동일하게 결여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그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반복될 것이며, 이미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려는 운동이 빠르게 세력을 얻고 있다.

로마 교회는 영리함과 교활함에서 실로 놀랍다. 그녀는 앞일을 읽을 줄 안다. 개신교회들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한 그들이 지난날 그녀 자신이 사용했던 바로 그 수단들로 그것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녀는 때를 기다린다.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그녀에게서 비롯된 제도를 높이기 위해, 자칭 무오한 이 권세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 일에 그녀가 얼마나 기꺼이 개신교도들을 도우려 나설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교회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교황권의 지도자들보다 더 잘 아는 이가 누구이겠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모든 갈래를 포함하여, 교황청의 통제 아래 있으며 그 이익을 섬기도록 고안된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이룬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그 교회의 수백만 신자들은 교황에게 충성을 바칠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 여기도록 교육받는다. 그들의 국적이거나 소속 정부가 무엇이든,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다른 모든 권위보다 위에 두어야 한다. 비록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이면에는 로마에 대한 복종의 서약이 자리하고 있어 교회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서약의 의무에서 그들을 풀어 준다.

역사는 그녀가 각국의 정사에 은밀히 스며들기 위해 교묘하고 집요하게 노력했으며, 일단 발판을 얻으면 군주와 백성의 파멸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1204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아라곤의 왕 피터 2세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선서를 받아냈다: '나, 아라곤인의 왕 피터는 나의 주 교황 이노센트와 그의 가톨릭 후계자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해 언제나 충실하고 순종할 것과,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나의 왕국을 성실히 보전할 것과,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이단적 사악함을 탄압할 것을 고백하고 약속한다.'-존 다울링, 로마니즘의 역사, 제5권, 제6장, 절.

55. 이는 로마 교황의 권한에 관한 주장들, 곧 '그가 황제들을 폐위하는 것이 합법적이다'와 '그가 신민들을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대한 충성의 의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는 주장들과 부합한다.-Mosheim, b. 3, cent. 11, pt. 2, ch. 2, sec. 9, note 17.

그리고 명심해야 한다.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의 원칙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원칙이다. 그리고 힘만 있다면, 로마는 과거 수세기와 다름없는 기세로 지금도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개신교도들은 주일을 높이는 일을 하는 데 로마의 도움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할 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몰두하는 동안, 로마는 자신의 권세를 재확립하고 잃어버린 우위를 회복하려 한다. 미국에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동원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종교적 준수가 세속 법으로 강제될 수 있으며, 요컨대 교회와 국가의 권위가 양심을 지배한다는 원칙이 한 번 확립되기만 하면, 이 나라에서 로마의 승리는 보장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해 왔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개신교 세계는 함정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에야 비로소 로마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로마는 조용히 세력을 키워 가고 있다. 로마의 교리들은 입법의 전당과 각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로마는 높고 거대한 구조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 은밀한 깊숙한 곳에서는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될 것이다. 남몰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로마는 때가 오면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마가 원하는 것은 유리한 입지뿐이며, 그것은 이미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로마 세력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보게 되고,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비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The Great Controversy, 563-581.